

■ 외환시장

2015년 말 원·달러 환율은 1,172.5원으로 2014년 말(1,099.3원) 대비 73.2원 상승했다. 연평균 환율은 1,131.5원으로 2014년 1,053원에 비해 78.4원 상승했다.

원·엔 환율(100엔당)은 974.1원으로 2014년 말(913.1원) 대비 61.0원 상승했다. 연평균 환율은 934.8원으로 2014년 996.6원 대비 61.8원 하락했다.

원·위안 환율은 177.85원으로 2014년 말 176.37원 대비 1.48원 상승했다. 연평균 환율은 179.5원으로 전년 170.9원에 비해 8.6원 상승했다.

연중 원·달러 환율 추이를 살펴보면 연 초반에는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기대 등으로 1,131.5원(3월 16일)까지 상승했다가 미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조정, 외국인 국내증권 투자 지속 등의 영향으로 1,068.6원(4월 29일, 연중 최저점)까지 하락했다.

연 중반에는 미 경제지표 호조, 엘런 연준 의장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발언(5월 22일, 7월 15일) 등으로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기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리스 디폴트 우려, 중국 등 신흥국 금융불안 우려 등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가세하면서 1,203.7원(9월 7일, 연중 최고점)까지 상승했다.

연 후반에는 미 고용지표 부진 등으로 연준의 금리인상 지연 기대가 확대되면서 1,121.0원(10월 19일)까지 하락했다가 미국과 주요국 간의 통화정책 기조 차이 부각, 중국 경기둔화 및 위안화 추가 절하, 저유가 지속 등으로 상승해 12월 30일 1,172.5원으로 마감됐다.

2015년 말 기준 총 외채는 3천966억 달러로 2014년 말 대비 278억 달러 감소했다. 단기외채는 1천87억 달러로 2014년 말 대비 77억 달러 감소했으며 장기외채는 2천878억 달러로 2014년 말 대비 202억 달러 감소했다.

외채가 감소한 것은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금액이 감소하고 은행이 외화차입금을 축소했으며 수출입 감소로 무역신용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기외채는 수출입 감소에 따른 민간기업 무역신용 감소, 은행 차입금 상황 등으로 감소했으며 장기외채는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의 국고·통안채 투자 평가액 감소, 기업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회사채 상환 등으로 감소했다.

단기외채 감소와 대외채권 증가 등으로 외채 건전성과 지급능력 지표는 전년 말 대비 개선됐다. 총 외채 대비 단기 외채의 비중은 27.4%로 2014년 말 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순대외채권은 3천232억 달러로 2014년 말 대비 640억 달러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가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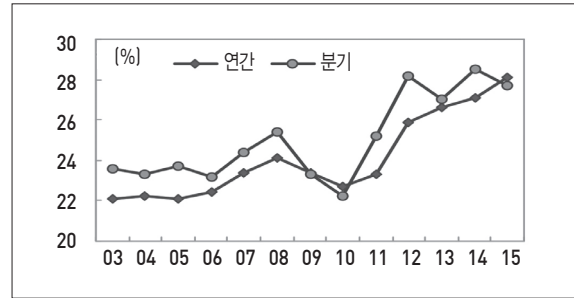
2015년에는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층 위주로 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 월평균 소득은 437만3천원이며 근로소득은 2014년 취업자 증가폭이 컸던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사업소득은 메르스 사태 등으로 감소했다.

이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월평균 지출은 337만3천원으로 소비지출 둔화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교통비 감소, 교육비·통신비 등의 절감이 크게 작용했다.

흑자율 추이

(단위 : %)



주 : 분기는 해당연도 4/4분기 비교

적자가구 비율

(단위 : %)

구분	2014		2015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전체	22.0	22.6	21.0	24.3	21.3	20.8	21.1
1분위	46.5	50.5	42.5	50.5	44.0	43.2	44.8
2분위	26.1	25.7	24.1	28.1	23.8	22.6	25.3
3분위	17.1	17.1	18.2	22.4	17.6	17.2	17.0
4분위	12.6	12.7	13.1	12.7	12.0	11.4	11.5
5분위	7.6	7.1	7.0	7.6	8.4	9.7	6.7

주 : 적자가구 =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가계수지는 소득(1.6%)이 소비지출(0.5%) 및 비소비지출(0.7%)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처분가능소득(356만3천 원) 및 흑자액(100만 원) 증가세도 지속됐다.

분배지표는 1분위 소득이 가장 빠른 증가세(4.9%)를 보이며 소득 5분위 배율이 전국기준 통계작성(2003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2015년 경제성장

개 관

201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2.6% 성장을 기록했다. 내수 회복세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2014년보다 성장세가 축소됐다.

생산측면에서보면 건설업은 2014년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은 2014년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출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메르스 등 충격에도 불구하고 2014년보다 증가세가 확대됐다.

또한 건설투자가 주택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설비투자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다만 수출은 2014년보다 크게 감소한 0.8% 성장에 그쳤다.

	연 간		2015° (전기대비)				2015° (전년동기대비)			
	2014	2015°	1/4	2/4	3/4	4/4	1/4	2/4	3/4	4/4
국내총생산 (G D P)	3.3	2.6	0.8	0.4	1.2	0.7	2.4	2.2	2.8	3.1
농림어업	3.6	-1.5	3.7	-11.0	4.7	-2.6	7.5	-4.0	-0.8	-5.0
제조업	3.5	1.3	0.4	0.9	0.4	0.7	0.6	0.5	1.5	2.4
건설업	0.8	3.0	1.8	-0.1	5.5	0.7	-0.5	-1.0	4.8	7.5
서비스업	3.3	2.8	0.7	0.2	1.1	0.7	3.0	2.9	2.8	2.7
민간소비	1.7	2.2	0.8	-0.1	1.1	1.4	1.5	1.7	2.2	3.3
정부소비	3.0	3.4	0.5	0.9	1.3	1.0	3.2	3.3	3.0	3.9
건설투자	1.1	3.9	5.5	1.8	3.3	-2.4	0.9	1.0	5.6	7.5
설비투자	6.0	5.3	0.5	0.8	1.8	0.5	5.8	5.1	6.7	3.9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5.4	1.5	1.7	-0.6	0.3	0.7	1.9	0.9	1.1	2.1
수 출	2.0	0.8	0.6	-0.1	-0.3	2.1	0.5	-0.4	0.5	2.5
수 입	1.5	3.2	0.9	0.4	1.4	3.2	2.1	1.6	3.1	6.1
국민총소득 (G N I)	3.4	6.5	4.0	0.0	1.5	0.0	7.5	5.8	7.5	5.5

주: 계절조정계열은 전기대비 증감률, 원계열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15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8% 성장(전년 동기 대비 2.4% 성장)했다. 생산측면에서는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이 모두 전기비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출측면에서도 건설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민간 및 정부 소비, 설비투자,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나갔다. 실질 국내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4.0% 증가(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2015년 2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4% 성장(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했다. 생산측면에서는 제조업이 증가했으나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전기비 포함세에 그쳤고, 농림어업은 큰 폭 감소했다. 지출측면에서는 메르스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감소세를 시현했고 건설투자의 증가폭도 크게 축소됐다. 정부 소비, 설비투자, 수출이 증가하며 2분기 성장을 뒷받침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0.0%(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로 둔화했다.

2015년 3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2% 성장(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했다. 생산측면에서는 2분기 부진했던 농림어업과 건설업이 큰 폭 반등했고 서비스업도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 증가세는 둔화됐다. 지출측면에서 민간소비가 증가세로 반전했고 정부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는 증가세를 키웠다. 반면 수출은 전기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1.5% 증가(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2015년 4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7%(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했다. 생산측면에서는 농림어업과 건설업이 감소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다. 지출 측면에서 수출이 증가로 전환된 가운데 민간소비의 증가폭이 더욱 확대됐다. 한편, 정부소비와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둔화됐고 건설투자는 크게 감소했다.

계절조정계열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2015년 1분기에 농림어업은 채소, 과일 등이 늘어나면서 3.7% 증가했고 제조업은 반도체 및 석유화학제품 등이 늘어나면서 0.4% 증가했다.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1.8% 증가했으며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늘어나면서 0.7% 성장했다.

2015년 2분기에 농림어업은 가뭄 등의 영향으로 11.0% 감소했으며 제조업은 휴대폰,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0.9% 증가했다.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이 증가했음에도 전월비 포함에 그쳤고 서비스업 역시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이 증가했으나 도소매·음식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감소하며 포함에 머물렀다.

2015년 3분기에 농림어업은 전분기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4.7% 증가했다. 제조업은 반도체 및 휴대폰을 중심으로 0.4% 증가했고 건설업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5.5%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메르스 영향으로 전분기 감소했던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보관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일제히 증가로 전환되면서 1.1% 성장했다.

2015년 4분기에 농림어업은 다시금 감소세로 전환했고 제조업은 석유 및 화학제품,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0.7% 성장했다. 건설업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0.7%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늘어나면서 0.7% 성장했다.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2015년 1분기에 민간소비는 자동차 등 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늘어 0.8% 증가했으며 건설투자도 주거용 건물건설이 호조를 보여 5.5%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늘었으나 기계류가 감소하며 전분기 대비 0.5% 증가에 그쳤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R&D) 투자를 중심으로 1.7% 증가했다. 수출은 LCD, 자동차 등 재화수출이 줄었으나 서비스수출이 늘어 전분기 0.6% 증가했고, 수입은 거주자 국외소비 및 운수서비스를 중심으로 0.9% 증가했다.

2015년 2분기에 민간소비는 메르스 영향으로 준내구재와 서비스가 큰 폭 감소하며 0.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감소했으나 운송장비가 늘어 0.8%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1.8% 큰 폭 증가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소프트웨어 투자가 늘었으나 연구개발(R&D) 투자가 감소해 0.6%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 재화수출을 중심으로 0.1% 감소했으며 수입은 원유, 자동차, 거주자 국외소비 등이 늘어 0.4% 증가했다.

2015년 3분기에 민간소비는 메르스의 부진에서 회복되면서 내구재와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1.1%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3.3%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감소했으나 기계류가 늘어 1.8% 성장했

다. 지식생산물투자는 소프트웨어 투자를 중심으로 0.3% 증가했다. 수출은 LCD, 화학제품, 선박 등이 줄며 0.3% 감소했으며 수입은 석탄 및 석유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이 늘어 1.4% 증가했다.

2015년 4분기에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전기보다 증가세가 더욱 확대돼 1.4%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감소했으나 운송장비가 늘어 0.5%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부진하며 2.4% 감소했다. 지식생산물 투자는 정부 R&D 투자를 중심으로 0.7% 증가했다. 수출은 화학제품, 휴대폰 등이 늘어 2.1% 증가했으며, 수입은 석유 및 화학제품, 운송장비가 늘어 3.2% 증가했다.

원계열

2015년 1분기에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2.4% 성장했다.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이 7.5%, 제조업이 전년 동기 대비 0.6% 각각 성장했고 건설업은 토목건설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 서비스업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증가에 힘입어 3.0% 증가했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승용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큰 폭 늘어나며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감소했으나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건물건설이 호조를 보여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1.9% 증가했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5% 늘어났으며 수입은 2.1% 증가했다.

2015년 2분기에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했다.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이 4.0%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0.5% 성장했다. 건설업은 건물건설이 늘어났음에도 토목건설이 감소하며 1.0% 감소했다. 서비스업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등이 증가세를 이어가며 2.9% 증가했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승용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큰 폭 늘어나며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감소했으나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건물건설이 호조를 보여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도 연구개발과 기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각각 늘며 0.9% 증가했다. 수출이 0.4% 감소한 반면 수입은 1.6% 증가했다.

2015년 3분기에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했다.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이 0.8%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1.5% 성장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이 감소했음에도, 건물건설이 큰 폭 증가하며 4.8% 늘었다. 서비스업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등이 증가세를 이어가며 2.8% 증가했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승용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큰 폭 늘어나며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감소했으나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건물건설이 호조를 보여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연구개발과 기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각각 늘며 1.1% 증가했다. 수출은 0.5% 증가했고 수입은 3.1% 증가했다.

2015년 4분기에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했다.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이 5.0%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2.4% 성장했다. 건설업은 7.5% 증가하며 증가세가 큰 폭 확대됐고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등이 증가세를 이어가며 2.7% 증가했다.

한편 지출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고 정부소비도 3.9% 증가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 7.5% 증가했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물가

■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자물가〉

2015년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0.7% 상승하면서 2014년에 이어 1% 내외의 저물가 흐름을 이어갔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물은 2014년의 낮은 가격에 따른 저효과와 재배면적 감소, 가뭄 등에 따른 공급 감소로 전년 대비 2.0%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담뱃값 인상 등으로 기타 공업제품이 13.0% 상승했으나 저유가에 따라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전년 대비 -19.2%)하면서 전년 대비 0.2% 하락했다.

전기·수도·가스는 도시가스요금 인하, 전기요금 하계 누진제 완화 등으로 전년 대비 7.4% 하락했다. 집세는 전세가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품목수	가중치	전년대비 등락률				
			2011	2012	2013	2014	2015
〈총지수〉	481	1000.0	4.0	2.2	1.3	1.3	0.7
- 상품	327	453.2	5.7	3.1	1.0	0.9	-0.7
(농축수산물)	71	77.6	9.2	3.1	-0.6	-2.7	2.0
(공업제품)	252	326.6	4.9	2.8	0.9	1.3	-0.2
(전기·수도·가스)	4	49.0	4.8	5.0	4.5	3.9	-7.4
- 서비스	154	546.8	2.7	1.4	1.5	1.6	1.8
(집세)	2.0	92.8	4.0	4.2	2.7	2.3	2.5
(공공서비스)	29	142.6	-0.4	0.5	0.7	0.8	1.2
(개인서비스)	123	311.4	3.7	1.1	1.6	1.7	1.9